

나주 '농작물 재해보험' 효자 노릇 '톡톡'

작년 5709농가 33억 내고 678억 보상 받아

나주지역 농업인들이 지난해 33억 원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내고 678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해보험 가입 건수와 보상액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태풍,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한 '농작

물 재해보험'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5709농가 7115건에, 농가 부담 보험료는 33억 원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태풍 불라벤으로 낙과 피해가 크게 늘면서 보험금 수령액은 67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399가구의 배 농가에서 3526건(보험료 25억원)의 보험에 가입해 576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파산을 면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08년 2261농가(농가부담 2억3700여만원)에서 2009년 4359농가(12억원), 2010년 4655농가(16억4000만원), 2011년 5206농가(27억원), 지난해 5709농가(33억원)으로 매년 상승

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도 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배, 단감, 뽕은감 등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추이에 따라 소요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배, 뽕은감 등 과수를 포함한 일반 작물은 1000㎡ 이상, 감자, 양파 등 밭작물은 1500

㎡(풍 4500㎡ 이상) 경작 농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를 국도비와 시에서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고,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배, 뽕은감 등 과수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나주배원에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대나무축제에서 인성교육 배운다

담양군-축제위-교육청 협약 체결

담양군이 지난 19일 오는 5월에 있을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의 개최를 위해 담양교육지원청,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축제의 성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0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최희우 부군수와 정기갑 담양교육장, 강성남 축제위원회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나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자는 대나무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죽마고우 문화학교'의 협력사업을 추진,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

여 참여를 유도해 창의적인 인성교육과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3자 협약체결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관광객의 입장이 아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맡아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즐기면서 다양한 체험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3일부터 6일간 죽녹원과 관방제일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는 '천년의 숲결, 푸른대숲 이야기'란 주제로 대나무 팻목타기, 죽물시장운영, 죽제품 제작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바지락 캐는 아낙들

지난 19일 청정해역 특산물 갯벌과 모래가 뒤섞인 장흥군 안양면 수문포 바지락 공동양식장에서 주민들이 싱싱하고 맛 좋은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바지락에 함유된 타우린은 간의 해독 기능을 촉진하여 숙취해소에 특효이며 식욕을 회복시켜주고 애주가의 숙을 말끔히 풀어 줄 수 있는 으뜸 요리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장흥군 제공

나주 금성산 무단벌채 산사태 위험

나주 금성산 자락이 규정을 어긴 무단 벌채로 산사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20일 대호동 금성산 자락에서 무단벌채를 한 산주 김보씨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긴급 조립, 집수정 설치 등 대책 마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금성산 2만1000여㎡를 수종을 바꾼다며 산

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지난달 소나무와 잣목 등을 모두 베어냈다.

문제는 김씨의 벌채조건이 일본 소나무 등 수종갱신을 위해 50%만 베어내고 나머지는 보전하는 조건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장흥 수화통역센터 개소식

장흥군에서는 지난 18일 청각·언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흥군 수화통역 센터' 현관식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장흥읍 읍성로에 개설된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가 수화통역서비스, 청각·언어장애인 고충상담지도, 출장 수화 통역서비스와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센터는 장흥군 관내 청각언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수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장흥토요시장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도 좋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흥군의 청각언어 장애인인 582명으로, 군 전체 장애인 4315명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수화통역 인프라구축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받습니다

강진군, 5개 분야

강진군이 오는 5월1일 '제41회 강진군민의 날'을 맞아 다음달 11일까지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강진군은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체육진흥, 충효도의, 농림어업 등 5개 분야에서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인 개인(외국인 포함)또는 단체를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읍면장은 추천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20인 이상, 개인은 30인 이상 주민의 연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 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다. 그러나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는 동일 공적내용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황금 찰수수’ 40ha 재배 10억 기대

부안, 농민·공무원 교육

부안군은 20일 계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민과 담당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 소득품목인 '황금 찰수수' 재배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식량과학원 정기열 박사가 '고품질 수수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주제로 강의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수는 맛이 좋고 깔끔한 느낌이 나며 설질이 따뜻해 잡 기능에 도움을 줘 실사를 멈추는데 도움

을 준다. 또 콜레라, 세균성 식중독, 급성 위장염을 다스린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수수는 웰빙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40ha 규모의 재배면적에서 10억원의 소득이 기대되는 가운데 군은 내년에 100ha로 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밥쌀, 과자, 식빵, 차, 음료 등 식품으로 개발 생산하고 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연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북 군산,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추진

학술 용역 중간보고회

10월 건강도시 비전 선포

군산시가 WHO 건강도시연맹(AFHC)가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2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건강도시위원,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 군산 조성을 위한 '살기 좋은 건강도시 군산' 프로젝트 개발 학술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원광대 의과대학 이영훈 교수가 건강도시 소개를 시작으로,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진행 상황과 군산시민의 건강지표 분석, 건강도시 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등 건강도시 군산 발전 초안에 대해 발표했다.

'건강도시 군산' 학술용역은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 비전, 핵심전략 및 성과지표를 개발해 건강도시 기반 조성과 나아가서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위한 국제 교류와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외 업무, 시범사업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시는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으로 공인을 받으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조직과 전략을 개발, 수행함으로써 생애 '건강도시 군산'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중장기 건강도시 군산 프로젝트가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5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에 '건강도시 군산' 비전을 선포할 방침이다.

군산=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미장택지지구 불법건축물 단속

군산시는 최근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미장택지개발지구(사진)에 인접한 도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인 공단대교변의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불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 등을 다수 적발했으며,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심미관 및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신흥택지개발지역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25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광로변을 미관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건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친환경쌀 부산 납품

미평가 항목에 투표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5개 업체 중 다득점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남농농조합법인은 2위 문경, 3위 군산을 제치고 단독으로 부산시 연세구청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향후 1년간 약 147t의 남원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미평가 항목에 투표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5개 업체 중 다득점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남농농조합법인은 2위 문경, 3위 군산을 제치고 단독으로 부산시 연세구청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향후 1년간 약 147t의 남원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미평가 항목에 투표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5개 업체 중 다득점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남농농조합법인은 2위 문경, 3위 군산을 제치고 단독으로 부산시 연세구청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향후 1년간 약 147t의 남원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밀밭 밟으며 툴랄라~

20일 전주시 용정동 우리 밀 재배단지에서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밀밭 밟기를 체험하고 있다. 밀밭 밟기는 겨울 추위로 들뜬 밀 뿌리를 땅에 밀착시켜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이뤄진다.

전남뉴스

단신 전주 평생학습 강사학교 수강생 모집

전주시와 전주평생학습센터는 2013년 평생학습 강사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3월5일까지 전북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강사학교는 오는 3월16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4월까지 진행하며, 특히 이번 강사학교는 신규강사에 대한 교육 후 강의 시범 운영을 실제로 해볼 수 있다.

시는 평생학습 대학 가용학기에 '내 생애 첫 강의' 시범운영을 추진, 교육 후 신규강사학교 교육 이수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평생학습강사로 추천할 예정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 다목적구장 동계훈련지 각광

순창군 실내다목적구장이 전국 최고의 동계훈련장소로 주목 받으며 정규 실업 및 대학팀과 전국중학교 테니스 선수단 잇따라 찾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창공설운동장 다목적구장을 찾은 실업팀은 서울시청, NH농협, 안성시청, 음성군청이며, 순창군청팀도 합류했다.

또 대학팀은 서울과학대, 인하대 등 7개팀 60여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마무리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로는 안성시청 소속 민유립, 유수정, NH농협 소속 김애경, 주욱, 서울시청 소속 양진환 등 5명이다. 전국중학교 테니스 12개팀 90여명의 임원과 선수단도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2차 동계 집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남원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 정비에 대해 2013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102동, 빈집 정비 134동에 총사업비 53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사업 물량은 주택개량 145동, 빈집 정비 122동 등으로 총사업비 역시 75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포함),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주택개량 후 농협을 통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금리연3%, 5년 거주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고창 산불방지 감시원 등 69명 선발

고창군은 20일 산불 전문진화대 20명과 감시원 49명을 선발하고 산불감시 및 안전교육 실시로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읍면의 응소방대를 활용하여 3월 초까지 산불 발생요인을 완전히 제거 할 계획이며, 특히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 49명 배치, 전문진화대 20명은 군에

서 비상대기하며, 앞으로 읍면진화대 32명을 추가 선발해 산불방지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전문 진화대 및 감시원 등 69명을 활용 봄철 산불예방은 물론 불법산지전용 및 소나무 굴취 행위 등을 감시하도록 해 산림자원 보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